

# INTRO

## Paraphrasing Training

### Paraphrasing (재진술) Training

#### 빠른정답

1	2	3	4	5
답지참고	답지참고	답지참고	less	답지참고
6	7	8	9	10
inward	⑤	②	②	procedures
11	12	13	14	15
②	③	②	②	③

01 [정답] 그 이유는 과학이 투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과학의 요지를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과학 작가가 필요한 것이다.

02 [정답] 역사의 맥락은 뒤에 문학 교실과 물리학 교실의 예시에서 ‘전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 (다시 말해 history of everything, genes, human evolution에 대한 것들을 배우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맥락이므로, a partial view는 Today~ 부분에서의 in fragments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03 [정답] 왜냐하면 바로 앞문장에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this nature of the human mind)했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04 [정답] 정답은 less이다. 왜냐하면, American culture에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축적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했는데, (이를 A라고 한다면) 일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적 의무감’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과는 반대되는 의미라고 일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A라는 의미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미국사람들이 이직을 하는 정도는 적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less이다.

05 [정답] 언어의 개수가 결국 인식의 개수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눈, 추위, 얼음에 대해서 언어가 1개밖에 없는데, 인식을 모두 같이 한다라는 것은 결국 언어의 개수 = 인식의 개수라는 점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다.

06 [정답] 여기서 대조 되는 것은, photographs (A) vs painters (B)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단어를 쓰는데 있어서부터 대조됨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representing things as they existed in the world’라고 쓰고 있는 반면에, 그림(화가)은 ‘represent things as they were in their imagination’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진은 ‘세상에 있는 그대로’ 사물을 나타낸다면, 그림은 화가들의 상상력에 있는 그대로 사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에서 차이를 통해 우리는 대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외부적인 모습 그대로’ 서술 하는 것이기 때문에, ‘outward’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화가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 묘사하기 때문에 이는 ‘inward’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inward가 적절하다.

07 [정답] 밑줄 그여져 있는 If success rate is considered very high or very low라는 부분은 task that are assumed to be of moderate difficulty (적절한 어려움을 지녔다고 여겨지는 일)에 대한 대조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success rate가 very high or low’ 하다는 말은, ‘적절한 어려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서로 대조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빈칸은 greatest의 반대되는 말로 weakened가 적절하다.

08 [정답] 밑줄 친 those with mental illness는 앞의 부분에서 competent adult의 대조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competent adult가 자신의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으므로, 반대되는 대조 되는 말은 결국 그러한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강제적인 치료’를 의미하므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은 compulsory가 적절하다.

09 [정답]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다. 이 문제는 A,B,C 대응 하는 구조를 G-S 구조에 맞춰서 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부분에 있는 ‘주변부 시야’라는 것은 뒤에 on the outskirts of our visual field (우리 시야 부분의 외곽)이라는 말로 재진술되어져 있으므로 그것이 A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중심과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의 움직임을 이끈다라는 C의 부분은 결국 우리 눈이 무작위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중요한 부분들을 본다는 부분까지가 C PART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빈칸 부분, 즉 앞에서 언급한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the fuzzy cues이다. 흐릿한 시야라는 말은 나온적이 없다. 이 부분이 바로 B의 재진술이 돼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다. (낮은 해상도의 단서를 제공한다)

# INTRO

## Paraphrasing Training

10 [정답] 헷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비슷해보이는 두 말을 구분해야하기 때문이다. 2번째 줄에서 보다시피 이 글에서는 ‘a metaphysics’ (해설에서는 이걸 A라고 하겠다) and ‘metaphysics’ (해설에서는 이걸 B라고 하겠다)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A와 B가 서로 대조 관계에 있다라는 점은 지문내에서 A와 B를 잇는 접속사로써 ‘on the other hand’라는 대조의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A는 ‘accurate, comprehensive, and supported by sound evidence’를 추구하는 세상을 보는 View(시각)이라는 결과인 반면에, B는 A를 개발 시킬려고 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행하는 학습되어진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A는 결과 그자체인 반면에, B는 A를 행하려고 할 때 시행하는 것이므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대조되는 부분을 그렇게 읽어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procedures이다.

11 [정답] 5번 정답은 결국 5번이 된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직접적 문장은 위에서 4번째 줄부터 등장하는, ‘textbooks often ignore the many alternate paths that people wandered down, the many false clues they followed, the many misconceptions they had.’ 가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그 밑으로는 모두 이 문장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문장이 General (일반적) 성격의 문장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등장하는 Newton의 얘기나 우리 교육 체계의 얘기는 이 문장에 대한 Specific (구체적) 성격의 문장이 되는 것이다.

결국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교과서가 사람들이 헤매던 여러 가지 길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그들이 선택했던 잘못된 근거들을 무시하고, 또한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잘못된 통념들에 대해서 무시하다라는 말이다. 결국 그들이 ‘잘못된 무수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성공한 것만 담는다라는 내용이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밑에 있는 Newton에 대해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결국 그의 인생이야기를 통해서 금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시스템이 그런 실패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음을 얘기한다.

12 [정답] 3번

지문에서 아마 머릿속에 있는 것은 ‘cooking’과 ‘science’일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며, 이 3번 선택지 안에는 cooking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오답률이 높았을 것이다. 이 문제의 정답률은 32%이다.

Our kitchens owe much to the brilliance of science, and a cook experimenting with mixtures at the stove is often not very different from a chemist in the lab

- 첫문장부터 보자면, 우리 주방은 과학의 탁월성에게 많은 것을 빚을 졌다고 얘기하고 있다

즉, 주방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이 과학의 은혜를 입은 듯 하다.

It is wrong to suppose, however, that \_\_\_\_\_.  
It is something more basic and older than this.

- 그렇지만, 빈칸 문장에 역접 문장이 나오고, that 이하의 빈칸을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빈칸 앞의 방향성과는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빈칸 다음 문장을 보면, ‘it’은 ‘this’보다 더 근본적이고 오래 된 것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빈칸 문장을 모르니, 여기서의 it과 this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시간의 차이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여기서 분명 앞문장에서, cooking이 science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이에 대한 역접이 빈칸 문장이니까, science의 도움을 cooking이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거기까지만 읽고 답을 내려는 학생들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는다. 정답은 3번이다. 만약 빈칸까지만 문장을 읽고 답을 낸다면 technology는 어떻게 유추해낼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재진술은 빈칸 뒤에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어거지로 cooking이 technology지! 임마! 요리가 얼마나 기술이 필요해?! 생각해봐! 라고 우겨야한다. 그풀이가논리적이라고생각하는가? 아니, 논리의 여부를 떠나서 기술 = 요리 라고 생각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억지풀이에 고개를 끄덕이면 안됨을 분명히 해둔다.

빈칸 뒤를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자.

Not every culture has had formal science —a form of organized knowledge about the universe that starts with Aristotle in the fourth century BC. The modern scientific method, in which experiments form part of a structured system of hypothesis, experimentation, and analysis is as recent as the seventeenth century;

- 모든 문화가 공식적인 과학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시작했던 정제된 지식들의 형태인 과학은 기원전 4세기 시작했으며, 최근의 현대적 과학 방법은 17세기가 돼서야 시작했음을 얘기하고 있다.

# INTRO

## Paraphrasing Training

the problem-solving technology of cooking goes back thousands of years.

- 지문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 문장이다. 과학은 그렇게 최근의 것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요리의 기술’은 수천년전을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여기서의 요리의 기술 technology of cooking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요리와 기술간의 상관관계가 등장한다. 이 재진술을 챙길 수 있어야만 하며, 여기까지의 내용은 ‘부엌(kitchen, cooking)’이 과학에 많은 것을 빚지긴 했지만(문두), 과학보다 요리의 기술이 훨씬 더 오래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답에 들어갈 내용은, 과학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요리의 기술이 훨씬 더 오래되었다라는 방향의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그저 기술, technology (of cooking)이 그저 과학적 생각의 적용에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3 [정답] 2번

(Specific) When we learn to read(=A), we recycle a specific region of our visual system known as the visual word-form area, enabling us to recognize strings of letters and connect them to language areas. (=B)

일단 General 한 일반적인 문장과, 여기 있는 Specific 한 문장은 같이 이해를 해야만 한다. 내가 위에 각 부분을 A,B,C 파트로 나눠놨듯이 이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자. B part의 내용은 ‘기능성을 확장’하는데 있고, A part의 내용은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그 아래의 구체적인 문장에 대응을 시켜보자면, A part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When we learn to read라고 할 수 있다. ‘읽는 것을 학습한다’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새롭게 받아들임을 의미한다(위에 발명품으로 제시되어진 것들을 보라, 글쓰기, 산수, 과학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가? 글 읽기 역시 글쓰기와 같은 맥락이므로 cultural tools의 예시로 제시되었다고 읽어낼 수 있다). 이는 A part에 가장 맞닿아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읽고 나면, 뒤에 있는 ‘시각적 단어 형성 지역’은 문자들의 곡선들을 인식하여 이를 ‘언어적 지역에 연결’시키는데, 이는 결국 시각적 단어 형성지역 (the visual word-form area)가 language areas로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expand its functionality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B part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읽고 나면 딱 한 부분, 우리가 ‘재활용한다’라고 얘기하는 we recycle a specific region~ 이하의 부분이 대응되지 않는다. 이는

왜그런가? 그렇다. 이것이 빈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C part에 해당하는 것이다. C part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재활용 하는 것’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깔끔하게 대응되게끔 만들어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평가원이 학생들이 확신을 하지 못할까봐 아래의 예시에서 또 반복해준다.

Likewise, when we learn Arabic numerals (=A part) we build a circuit to quickly convert those shapes into quantities (=C part) —a fast connection from bilateral visual areas to the parietal quantity area. (=B part)

밑에 있는 부분 역시 A,B part에 대한 대응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을 C part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C part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재활용’이라는 말이 없어서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의 C part 역시 재활용임을 아래의 문장에서 얘기를 해준다라고 할 수 있다.

This “cultural recycling” implies that the functional architecture of the human brain results from a complex mixture of biological and cultural constraints.

이러한 ‘문화적 재활용’이라고 했으므로, 여기서의 예시 역시 (we build a circuit to quickly convert those shapes into quantities) 역시 문화적 재활용을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두 예시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문화적 재활용’인 것이다. 이것이 빈칸에 들어갈 새로운 정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우리의 오래된 부분을 새로운 방식으로 동원하다라는 것이 된다.

### 14 [정답] 2번

이 지문의 문제의 정답을, 단순히 ‘이때까지 시장의 접근 제한당했던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접근 기회를 주는 것이 trade justice (무역 정의)에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만 집중했다면’ 정답이 2번이라고 했을 때, ‘historic’의 근거가 궁금할 수 있다. 물론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 수 도 있지만, 소거법은 언제까지나 차선책일뿐 우선되는 풀이일 수는 없다. historic의 근거는 2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 꼼꼼히 글을 읽지 않고, 단어들에 귀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 Unequal terms of trade, protective tariffs, quality standards, and other barriers have long combined to deny farmers in the global South, both small and large, access to profitable consumer markets in the rich nations.

**PART A****Comprehension****빈칸추론 수능 실전 기출문제 해설**

빈칸추론 수능 실전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빠른정답(49~68)**

49	50	51	52	53
①	⑤	①	②	③
54	55	56	57	58
②	①	④	③	②
59	60	61	62	63
②	④	②	③	①
64	65	66	67	68
①	⑤	②	②	④

**49**

[2022학년도 수능]

정답 ①

[Comment] 매우 쉬운 문제.

[Comprehension] Humour involves not just practical disengagement but cognitive disengagement.

유머는 단순히 실제적인 이탈뿐만 아니라, 인식적인 이탈 역시 포함한다고 하고 있어.

As long as something is funny, we are for the moment not concerned with whether it is real or fictional, true or false. This is why we give considerable leeway to people telling funny stories. If they are getting extra laughs by exaggerating the silliness of a situation or even by making up a few details, we are happy to grant them comic licence, a kind of poetic licence.

어떤 것이 재미있다면,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 순간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들이 웃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여지를 주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네! 그 뒷문장에서 Comic license 를 허락한다는 말 역시 어느정도의 진실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거나 과정한다하더라도 수용한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거겠지!

Indeed, someone listening to a funny story who tries to correct the teller - 'No, he didn't spill the spaghetti on the keyboard and the monitor, just on the keyboard' - will probably be told by the other listeners to stop interrupting.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것 역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진지한 사람이 사실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듣고있는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듣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 즉 웃기려고 하는 말은 어느정도 사실관계에서 벗어나도 된다라는 말이겠지. 그 말은 결국 첫 문장에서의 cognitive disengagement에 해당하겠네.

The creator of humour is putting ideas into people's heads for the pleasure those ideas will bring, not to provide \_\_\_\_\_ information.

유머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수 도 있다라는 말만 반복된 글이었기 때문에, 결국 빙간에 들어갈말은 not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이라고 할 수 있어. 정답은 1번. 매우 쉬운빙간.

[어휘] disengagement 이탈, 해방 for the moment 잠깐 exaggerate 과장하다 silliness 어리석음 make up ~을 꾸며내다, 지어내다 grant 허락하다, 부여하다 licence (창작상의) 파격, 허용 correct 바로잡다, 정정하다 spill 쏟다, 흘리다 interrupt 방해하다, 끼어들다

[해석] 유머는 실제적인 이탈뿐만 아니라 인식의 이탈을 포함한다. 어떤 것이 재미있다면, 우리는 잠깐 그것이 진짜인지 허구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여지를 주는 이유이다. 만약 그들이 상황의 어리석음을 과장하거나 심지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꾸며서라도 추가 웃음을 얻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기꺼이 희극적 파격, 일종의 시적 파격을 허락한다. 실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야, 그는 스파게티를 키보드와 모니터에 쏟은 것이 아니라 키보드에만 쏟았어.'라며 말하는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그는 아마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방해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유머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 생각이 가져올 재미를 위해서이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50**

[2022학년도 수능]

정답 ⑤

[Comment] 글이 나누면 나누어서 읽는다라는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딱 같은말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아니라 과거 뉴스 스타일 (정보전달형,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길게 말하는 등..) 과 요즘 뉴스 스타일 (빠르고, 간결하게하고, 사람들의 눈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등..) 의 범주로 나뉘어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딱 나누기란 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선택지 역시 한 단어 틀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되어 있어 정답률이 32% (EBS기준) 밖에 되지 않는다.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 PART A

## Comprehension

### 빈칸추론 수능 실전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Comprehension] News, especially in its televised form, is constituted not only by its choice of topics and stories but by its \_\_\_\_\_. 뉴스가 특히 텔레비전 형태로 방영되어 질때는 뉴스의 이야기와 토픽 선택에 의해서만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칸에 의해서도 구성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일단 첫문장이고 빈칸이니 내용을 좀 더 읽어봐야겠지?

Presentational styles have been subject to a tension between an informational-educational purpose and the need to engage us entertainingly.

표현 스타일은 정보, 교육적 목적과 재미있게 우리를 몰입시키려는 필요사이에 긴장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다고 하네.

While current affairs programmes are often ‘serious’ in tone sticking to the ‘rules’ of balance, more popular programmes adopt a friendly, lighter, idiom in which we are invited to consider the impact of particular news it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verage person in the street’.

최근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균형을 맞추는 법칙을 고수를 하는데 진지하려 하지만, 프로그램들은 친근하고 더 가벼운 표현 양식을 채택하는데, 그 표현 양식에서 우리는 거리에서 만나는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특정 뉴스 기사의 영향을 고려해보게 된대. 즉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정보-교육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도, 일상의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 뉴스를 바라보는 ‘우리를 몰입시키려고’하는 행동을 같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네. 윗 문장에 대한 구체적 설명정도가 될 것 같아.

Indeed, contemporary news construction has come to rely on an increased use of faster editing tempos and ‘flashier’ presentational styles including the use of logos, sound-bites, rapid visual cuts and the ‘star quality’ of news readers.

게다가, 현대적인 뉴스 구성은 더 빠른 편집 속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또한 현란한 발표 스타일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대. 다시 말해서 표현방식에 있어서 최근에 어떻게 좀 바뀌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Popular formats can be said to enhance understanding by engaging an audience unwilling to endure the longer verbal orientation of older news formats. However, they arguably work to reduce understanding by failing to provide the structural contexts for news events.

인기 있는 포맷은 길게 말을 하는 오래된 뉴스포맷을 견딜 의지가 없는 시청자들의 주의를 끌어서 이해를 높였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뉴스사건에 관한 구조적 맥락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틀림없이 이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첫문장을 읽을때는 어떻게 재진술이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연결하기가 힘들었지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아. 뉴스 내용 자체의 이해, 그리고 정보, 교육적 목적으로 표현되는 A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겠지.

A= its choice of topics and stories = informational-educational purpose = ‘serious’ in tone sticking to the ‘rules’ of balance = provide the structural contexts for news events. 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B라고 하면 B에 같은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겠지?

B= the need to engage us entertainingly = the need to engage us entertainingly = impact of particular news it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verage person in the street’ = faster editing tempos and ‘flashier’~ = Popular formats 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는 최근의 뉴스 스타일, 즉 템포가 빠르고 화려하게 편집되며 사람들을 흥미롭게하는 뉴스 방식을 의미해.

결국 빈칸은 A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B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verbal and visual idioms or modes of address, 5번이 되겠지! 다른 선택지도 한번보자.

#### ① coordination with traditional display techniques

전통적인 표현기법과의 조화 – 최근의 표현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으므로 traditional 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아! 오답.

#### ② prompt and full coverage of the latest issues

최신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도 완전한 보도 – 신속이라는 단어는 최신의 뉴스스타일에도 적합한게 맞는 것 같아. 다만 표현방식에서의 신속이라고 했지, 내용면에서 속보가 옛날보다 더 빨라졌다라는 아니었잖아? prompt라는 단어를 보고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또 뒤에 보면 full 이라는 말이 있잖아. 온전하다라는건데,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최신의 이런 스타일은 오히려 이해력을 떨어뜨렸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prompt와 뒤엣말들 때문에 헷갈렸다 하더라도 full로 제외시켰어야하는 선택지인 것 같아. 선택지 자체의 내용도 안맞고! 오답.

#### ③ educational media contents favoured by producers

교육적 미디어 컨텐츠이라는 말에서 교육적이라는 말은 교육적 목적, 즉 A에서 언급했던거고 B의 자리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 교육적 목적의 컨텐츠를 프로듀서들이 좋아한다라는 말도 글에서 찾아볼 수 없어. 적절치 않은 선택지 오답.

# PART A

## Comprehension

④ commitment to long-lasting news standards

오래도록 지속하는 뉴스 기준에 대한 전념 – 완전 반대 선택지지?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이야. 역방향

**[어휘]** constitute 구성하다 presentational style 표현 방식 subject to ~의 영향을 받는 tension 긴장 상태 informational 정보를 제공하는 engage 주의를[마음을] 끌다 entertainingly 재미있게 current affairs programme 시사 프로그램 tone 어조 stick to ~을 고수하다 idiom 표현 양식, 관용구 perspective 관점 contemporary 현대의 construction 구성 flashy 현란한, 화려한 sound-bite 짤막한 방송용 어구 format (전체) 구성, 포맷 enhance 높이다 verbal 언어적인 orientation 지향 arguably 아마 틀림없이, 주장하건대 structural 구조적인

**[해석]** 뉴스, 특히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형태는 그것이 선택하는 주제와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어적, 시각적 표현 양식이나 전달 방식에 의해서도 구성된다. 표현 방식은 정보 제공 및 교육적 목적과 재미있게 우리의 주의를 끌 필요성 사이의 긴장 상태에 영향을 받아 왔다. 시사 프로그램들이 흔히 균형이라는 ‘규칙’을 고수하면서 어조가 ‘진지하’지만, 더 대중적인 프로그램들은 친근하고 더 가벼운 표현 양식을 채택하는데 그 표현 양식에서 우리는 ‘거리에서 만나는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특정 뉴스 기사의 영향을 고려해보게 된다. 사실, 현대의 뉴스 구성은 로고, 짤막한 방송용 어구, 빠른 시각적 편집 화면, 그리고 뉴스 독자의 ‘스타성’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 더 빠른 편집 속도와 ‘더 현란한’ 표현 방식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에 의존하게 되었다. 대중적인 구성은 정형화 언어를 지향하는 낡은 뉴스 구성 방식을 견딜 의사가 없는 시청자의 주의를 끌어서 이해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뉴스 사건에 관한 구조적 맥락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아마 틀림없이 이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51**

[2022학년도 수능]

정답 ①

**[Comment]** 그냥 예전에 이제 주제를 쓰는 듯한 빈칸의 느낌도 약간 난다. 31번과 더불어서 쉬운 빈칸의 위치를 담당했던 듯. 2022학년도 수능은 쉬운 빈칸 2개와 어려운 빈칸 2개로 이루어져 있었던 듯 하다. 49번과 51번 (시험지에서는 각각 31,33번)에서 시간단축을 했어야 50,52번에서 시간을 쓸 수 있었을 듯.

**[Comprehension]** Elinor Ostrom found that there are several factors critical to bringing about stable institutional solutions to the problem of the commons.

Elinor Ostrom은 공유지의 문제에 대해서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가지고 오는데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대.

### 빈칸추론 수능 실전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She pointed out, for instance, that the actors affected by the rules for the use and care of resources must have the right to \_\_\_\_\_.

가령, 그녀는 지적하기로 자원의 이용과 관리의 규칙에 영향을 받는 행위자는 빈칸 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자원의 이용과 관리의 규칙에 영향을 받는 행위자가 어떤 권리를 가져야하는지 라고 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쉽게 Targeting이 되는 것 같네.

For that reason, the people who monitor and control the behavior of users should also be users and/or have been given a mandate by all users.

빈칸의 이유로, 사용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또한 사용자이거나 혹은 모든 이용자에 의해서 위임을 받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이게 아직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을 것 같아. 좀 더 읽어보자, 어쨌든 빈칸의 이유로 사람들의 사용을 관리하는 사람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면서 모든 사용자의 위임을 받았어야 한다라는 말을 잡고 아래로 내려가보자.

This is a significant insight, as it shows that prospects are poor for a centrally directed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commons coming from a state power in comparison with a local solution for which users assume personal responsibility.

이러한 시각이 중요한 까닭은 (as) 이러한 점이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힘으로부터 공유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직접적인 해결책은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야. 사용자들이 개인적인 책임을 떠맡게 되는 (assume – (책임 따위)를 맡다) 지역적 해결책과 비교해봤을 때 말이야.

아. 그러니까 공유지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중앙권력과 같은 정부에서 무작정 아래라 저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며 관리하는 지역적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네.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사용자거나 사용자의 모든 위임을 받는 지역적 수준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Ostrom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decision processes and that all users must be given access to local forums for solving problems and conflicts among themselves.

Ostrom은 또한 민주적 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모든 사용자는 그들 사이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포럼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네. 즉 지역적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야하는거지, 거기에 무슨 중앙정부가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네. 그럼 빈칸에 들어갈말은? ‘지역의 사람들이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권리 정도가 들어가면 되겠지.

## PART B

Technique

### 문장삽입 B type 수능 실전 기출문제 해설

문장삽입 B type 실전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 빠른정답 (160~169)

160	161	162	163	164
⑤	⑤	⑤	④	⑤
165	166	167	168	169
⑤	④	④	④	④

**160**

[2022학년도 수능]

정답 ⑤

[Comment] also를 잘 활용했어야하는 문제. 그냥 피상적으로 '또한'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려고, 그리고 근거를 찾으려고 덤벼들었으면 잘 근거가 안보였을지도 모른다. 또한 the replaced human workers가 주어진 문장 속에서 Retraining current employees for new positions를 논리적으로 받기 때문에, 저 말이 남는거긴 하지만 아마 그렇게 풀기란 힘들었을 것이고, 글에서 이 문장의 '논리적 위치' 가 어디인가를 따졌었어야만 한다. 즉 글의 순서에서의 구획을 나누는 것과 비슷하게, 이 문장의 논리적 위치를 생각해봐야하는 것이다. 문제가 점점 고차원적이어지고 있다.

[Comprehension] Retraining current employees for new positions within the company will also greatly reduce their fear of being laid off. 주어진 문장부터 읽어보자. 현재의 노동자들을 회사내의 새로운 위치로 재훈련시키는 것은 '또한' '해고당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을 굉장히 줄여줄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Also라는 것은 같은 주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를 나열할 때 쓰일 수 있다는거 이해돼? 건강한 음식으로는 김치찌개가 있다. 또한, 비빔밥 역시 건강한 음식에 속할 수 있다. 이런 경우처럼, '건강한 음식'이라는 같은 주제에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나열할 때 쓰이는 말이라는걸 염두에 두면서 주어진 문장을 읽어내도록 하자! 뭐, 그렇지만, 일단 주어진 문장의 내용만으로 알 수 없으니까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자.

Introduction of robots into factories, while employment of human workers is being reduced, creates worry and fear.

인간 노동자의 고용이 감소하는 동시에, 회사에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걱정과 두려움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①) It is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to prevent or, at least, to ease these fears.

이러한 두려움을 완화시켜주거나, 적어도 예방해주는 것의 경영자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여기부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두려움의 완화, 감소'와 관련된 문장이 나오기 시작할테니까 잘 읽고, 꼼꼼하게 읽어야만 하겠단 생각!

(②) For example, robots could be introduced only in new plants rather than replacing humans in existing assembly lines. – 실직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방법 (1)

예시가 나오고 있네. 로봇은 새로운 공장에만 도입되고, 기존의 조립라인에 있는 인간을 대체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대. 이게 뭐하는거야? 바로 기존 인간 노동자들의 실직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방식 1이지!

(③) Work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lanning for new factories or the introduction of robots into existing plants, so they can participate in the process.

노동자들은 가령, 새로운 공장을 계획하거나, 기존 공장에 로봇드를 도입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과정에 참여를 해야한다. 이건 앞문장과 같은 맥락, 즉 로봇을 어디에 참여할거고, 얼마나 넣을거고 등의 결정하는 과정에 인간이 참여해야한다라는 것이지!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로봇을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의 인간의 과정 참여라고 할 수 있어!

(④) It may be that robots are needed to reduce manufacturing costs so that the company remains competitive, but planning for such cost reductions should be done jointly by labor and management.

로봇은 사실, 회사가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생산비용을 감소시켜야한다는 점에서 필요로 되어질 수 있대. 하지만, 그러한 비용절감을 계획하는 것은 '노사'(노동자와 사용자(회사))가 같이 계획을 해야만 한 대. 여기까지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거야? 바로, 로봇의 도입과 그 절차에 노동자가 참여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거야. 아직 글의 흐름이 바뀌지 않았지? also라는 말이 주어진 문장이 있었단걸 생각해보면, 다른 병렬적 내용이 등장해야지만 그 부분에 문장을 넣을 수 있어!

(⑤) Since robots are particularly good at highly repetitive simple motions, the replaced human workers should be moved to positions where judgment and decisions beyond the abilities of robots are required.

자, 5번까지 왔어. 이 말이 이때까지 우리가 읽었던 로봇 도입에 인간 노동자들이 참여해야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 같아? 조금 다른 말로 느껴져야만 해. 로봇은 특히 단순히 반복적인 동작을 잘하기 때문에, '교체되어진' 인간 노동자는 로봇의 능력을 넘어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위치로 옮겨져야'한다.

## PART B

Technique

문장삽입 B type 수능 실전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일단, 교체된다라는 맥락이 왜 나오고, 위치로 옮겨져야한다, 즉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한다라는 말이 어디선가 읽어본 것 같지않아?

일단 분명한건, 5번은 로봇 도입에 대한 계획과 새로운 공장을 짓는거에 있어서 인간이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과는 살짝 궤가 다른, 인간과 로봇의 업무에 있어서의 역할분담. 인간은 어떤일을 맡아야하고, 로봇은 어떤일을 맡아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인거 이해돼? 즉 다른 요소로 바꾸고 있는거지.

5번에 주어진 문장을 넣어보면,

Retraining current employees for new positions within the company will also greatly reduce their fear of being laid off.

- 실직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방법 (2) 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문장에서 보면 새로운 보직으로 기존 노동자를 재훈련시키고 =>

그게 5번 선택지에서 '교체되어진 인간노동자', '~위치로 옮겨져야한다'라는 말과 연결된다라는 것 이해돼? (즉 Retraining current employees = the replaced human workers / for new positions = should be moved to positions 인거지!)

그것 뿐만 아니라, 5번 뒷 문장이 앞에서의 실직 두려움 줄여주는 방법(1)과 다른 궤의 문장이 나오고 있음에, 여기 이 부분이 바로 'also'라는 표현이 나오며 추가로 요소가 나올 타이밍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 독해력이 이제 매우 중요해진 트렌드에 우린 지금 올라타있음을 이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 정답률 25%, 그당시 시험지에서 오답률 1위였던 문제였어!

**[어휘]** be laid off 실직을 당하다 introduction 도입 management 경영(진) replace 대체하다 existing 기존의 competitive 경쟁력이 있는 repetitive 반복적인 judgment 판단

**[해석]** 공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인간 노동자의 고용이 줄어들면서 걱정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두려움을 예방하거나 최소한 완화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다. 예를 들어 로봇은 기존 조립 라인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대신 새로운 공장에만 도입될 수 있다. 노동자는 새로운 공장을 계획하거나 기존의 공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데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로봇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원가절감을 위한 계획은 노사가 함께해야 한다. 회사 내 새로운 직책을 위해 현재 직원을 재교육하면 해고에 대한 두려움도 또한 크게 줄어들 것이다. 로봇은 특히 매우 반복적인 단순 동작을 잘하기 때문에 교체된 인간 노동자는 로봇의 능력을 넘어선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위치로 옮겨져야 한다.

**161**

정답 ⑤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Comment]** 같은 말은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에 충실한 문항이면서도, 2022 학년도 6평 잠의 역할 지문 (162번 문제)부터 이어진 기조는, 모든 선택지에서 꼼꼼한 독해를 통해서 문장간의 연결이 완벽히 이뤄지고 있다는걸 Catch하지 못하면, 빠져들 구석이 너무 많다라는 점이다. 이 문제도 답의 근거만 잡고, 그냥 해설을 끝내버린다면 1/5만큼만 해설한 것이 된다. 모든 문장에 대한 연결을 잘 봐보도록 하자. (특히 160, 161, 162번 문장은 모든 문장의 연결이 되어야만 한다.)

**[Comprehension]** Personal stories connect with larger narratives to generate new identities.

주어진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하자. 개인적인 이야기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생시키며 큰 이야기들과 이야기 된대. 이 문장만 읽어선 무슨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아래로 바로 넘어 가보도록 하자.

The growing complexity of the social dynamics determining food choices makes the job of marketers and advertisers increasingly more difficult. 식품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역학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마케팅 담당자와 광고주의 업무가 더 어려워지고 있대.

(①) In the past, mass production allowed for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of products, as well as their wide distribution, and was accepted as a sign of progress.

과거에는 대량생산이 제품을 광범위하게 유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을 입수하고 구매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했으며, 발전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②) Nowadays it is increasingly replaced by the fragmentation of consumers among smaller and smaller segments that are supposed to reflect personal preferences.

오늘날에는, 그런 대량 생산은, 개인의 선호를 반영해야하는 점점 더 작은 규모로 가는 와중에 소비자들의 패턴화로 대체되어졌다. 즉 옛날에는 그냥 많이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거였는데, 지금은 각 개인의 선호를 다 맞춰줘야하는거지!

1번과 2번 사이에는 시간적 흐름(*In the past => Nowadays*)가 있어서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두문장이 묶여서 1번 앞문장의 구체적인 얘기, 즉 '식품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역학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라는 말의 구체적 예시라는걸 이해 할 수 있겠어? 즉 G-S구조로도 1,2번은 붙어있고, 시간적 흐름으로도 붙어있으니까 잘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지!

## PART B

Technique

(③) Everybody feels different and special and expects products serving his or her inclinations.

모든 사람은 다르고, 특별함을 느끼고, 각 개인의 성향을 만족시켜주는 제품을 기대한다. 이건 3번 앞문장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니 충분히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④) In reality, these supposedly individual preferences end up overlapping with emerging, temporary, always changing, almost tribal formations solidifying around cultural sensibilities, social identifications, political sensibilities, and dietary and health concerns.

현실에선, 이렇게 개인적 선호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문화적 감성, 사회 정체성, 정치적 감성, 식생활과 건강에 관한 관심을 중심으로 확고해지고, 최근에 생겨나고, 일시적이며, 항상 바뀌는 거의 부족적인 형상들과 겹쳐지게 된다.

(1) 이 문장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어야하는 건, these 라는 대명사가 나오니까 일단 대응이 되는가?부터 생각해봤어야해 – 되지? his or her inclinations 을 받을 수 있을테니까 연결 된다라고 볼 수 있어.

(2) In reality가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의 내용을 연결해주지. 앞문장에서는 그렇게 다 개인적인 선호를 나타내는 제품을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결국엔 공동체의 것들과 비슷해진다(=부족적인 형상들과 겹쳐지게 된다)라는 것으로 앞문장에 대한 현실을 알려주는 ‘역접’으로써 기능하며 두 문장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을 Check 할 수 있으면 돼.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Personal과 같은 ‘개인’이라는 단어를 봤었지만, 분명히 larger narratives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보기도 했어! 그래서 5번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⑤) These consumer communities go beyond national boundaries, feeding on global and widely shared repositories of ideas, images, and practices.

(1) 5번에서의 연결 – 주어진 문장을 이렇게 나눠보자. Personal stories connect with larger narratives (=A) // to generate new identities. (=B) 로 나눈다면

(A)에 대한 이야기, 즉 개인적 이야기(개인적 선호) 가 더 큰 이야기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은, 결국 개인들이 기대하는 개인적 성향에 맞춘 제품이, 공동체들이 고려 하는 문화, 사회, 정치적 감성, 식생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겹쳐지게 된다라는 문장이 바로 5번 앞문장에서의 내용이었던 것 이해돼? 그럼 그 부분은 앞에 있는것이라고 할 수 있고.

문장삽입 B type 수능 실전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그럼 (B), 즉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이야기는? 5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이러한 소비자 커뮤니티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다’ 라는 말은, 결국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다라는 (B)의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거야. 따라서 같은 말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정답이 5번.

(2) 그런데, 왜 4번은 안되는가? – In reality가 ‘역접’으로써 기능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봐야해. 4번은 뒷문장에서 ‘결국 공동체의 욕구와 비슷해진다’라는 말인데, 주어진 문장 역시 개인적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 (공동체)를 만나게된다라니까 두 문장 사이에서는 역접이 이뤄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즉 In reality가 대응 될 수 없다라는 걸 고려해본다면) 4번은 적절치 않은걸 알 수 있어! 따라서 정답은 5번.

**[단어]** dynamics 역학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 accessibility 입수할 수 있음 affordability 구매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음 distribution 유통 segment 부문, 부문 inclination 기호, 성향 supposedly 생각하건대, 아마 overlap 겹친다 emerging 최근 생겨난 temporary 일시적인 tribal 부족의, 종족의 solidify 확고해지다 sensibility 감성, 감수성 social identification 사회 정체성 boundary 경계 feed on ~ 때문에 더 강화되다

**[해석]** 식품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역학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마케팅 담당자와 광고주의 업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에 대량 생산은 제품을 광범위하게 유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을 입수하고 구매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했으며, 발전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요즘 그것은 개인의 선호를 반영해야 하는 점점 더 작은 규모의 부문 사이에서 소비자 단편화에 의해 점점 더 대체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르고 특별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기대한다. 현실에서, 개인적 선호라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은 결국 문화적 감성, 사회 정체성, 정치적 감성, 식생활과 건강에 관한 관심을 중심으로 확고해지는, 최근에 생겨나고, 일시적이며, 항상 바뀌고, 거의 부족적인 형상들과 겹쳐지게 된다. 개인의 이야기는 새로운 정체성을 생성하며 더 큰 이야기와 연결된다. 이들 소비자 집단은 국경을 넘어 개념, 이미지, 관습의 전 세계의 널리 공유된 저장소로 인해 더 강화된다.

162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정답 ⑤

**[Comment]** 단절 코드가 있었지만, 4번에 On the other hand에서 이상함을 느낀 친구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문의 구조를 이해 하지 못하고, 그것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연결을 못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가 대조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는 의미로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는 말 역시 왜 그렇게 썼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게 그